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기문(記文) 연구*

권진옥**

|| 차례 ||

- I. 머리말
- II. 『망운정기(望雲亭記)』 - 참신한 의론과 편장자구의 안배
- III.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 - 체재의 혼합과 철리적 산수관
- IV.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 - 유흥의 회복과 애민 의식
- V. 맺음말

【 】

본고는 17-8세기 지성사에서 소론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소론계 학맥을 건인하는 핵심적인 인물인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기문(記文)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참신한 의론을 개진하고 산문수사학에서 이른바 편장자구의 안배가 돋보이는 작품이 『망운정기(望雲亭記)』이다. 『망운정기』는 ‘망운(望雲)’의 일반적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이효위충(移孝爲忠)’의 주제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세워졌던 ‘망운정(望雲亭)’에 대한 한시나 기문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객지 살이하는 나그네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경향이 짙은 것을 감안하면, 남구만의 의론은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구만의 산문에 대해 평가 가운데 ‘교밀(巧密)’, ‘정절(精切)’ 등의 평어(評語)가 보이는데,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산문수사학에서의 이른바 편장자구의 안배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망운정기』는 이러한 남구만 산문의 구성적

* 본 논문은 2016년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제323차)*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강성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강사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두 번째로 장르면에서 여러 산문 체재를 혼합하고 주제면에서 철리적 산수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이다. 이 작품은 체제에 있어서, 해당 승경을 그림으로 묘사한 뒤 기사, 사경, 의론을 부기한 일종의 제화(題畫) 글쓰기의 형태이면서 실용적인 지리지(地理志)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일기 식으로 작성한 상세한 노정, 동행지를 위시한 제3자의 등장 등을 제외하면 산수유기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간략하지만 해당 승경의 위치와 목적지에 이르는 노정 소개, 해당 승경에 대한 설화나 현지인과의 대화, 해당 승경 및 주변의 경물 묘사, 승경 유람 후의 작자의 심정이나 의론을 부기하는 등 산수유기로서의 면모를 대체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제화 형태의 산수유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남구만의 산수관을 보여준다. 산수의 발견을 재덕자(才德者)의 우불우(遇不遇)와 연계시키는 방식은 바로 유종원(柳宗元)의 『영주팔기(永州八記)』에서 연유하였다. 다만 함경도 관찰사로서 남구만이 『북관십경도기』를 지은 것이, 유종원처럼 좌천된 불우한 심정을 산수유기에 기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겠지만, 산수의 발견과 재덕자의 우불우를 관련시키는 사유는 분명 유종원의 『영주팔기』에 근원하였고 이것이 또한 『북관십경도기』를 광의의 산수유기로 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수관 외에 경물을 통한 철리(哲理)의 체득 또한 남구만의 중요한 산수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수관은 도학자(道學者)가 격물치지로써 산수 유람을 구도(求道)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유와 관련되어있다. 남구만은 어느 승경, 어떤 경물이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철리를 체득하기를 요구한다.

세 번째로 선왕의 유풍 회복과 애민의식이 두드러지는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이다. 남구만이 방문했던 온양의 온천은 역대 선왕(先王)과 선비(先妃)가 요양을 위해 수시로 행차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남구만이 둘러본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려 과거의 유풍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온천이라는 장소를 단순히 치료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늘→성왕→백성으로 이어지는 은택과 덕화의 매개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의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촉발되었고, 이는 선왕의 유풍에 대한 회복과 애민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유는 결국 직접 온천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행동으로 관철되었으니 그 절실함이 어떠한지를 기증할 수 있다. 남구만은 여러 글을 통하여 고토(古土) 회복 의식과 실지(失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사라진 유풍의 회복에 대한 그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전자가 그의 역사의식의 발로라면, 후자는 그의 애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기문(記文), 참신한 의론, 편장자구, 산수유기, 산수관, 유풍의 회복과 애민 의식

I. 머리말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17-8세기 노·소 분기 때 소론계의 핵심 인물로, 전형적인 관료문인이었다. 남인과의 반목, 노론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수차례 부침을 겪었지만 생애 전반에 걸쳐 국정 현안을 담당한 관료였으며, 한시와 산문을 비롯한 서화에 조예가 깊은 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지리 방면에도 해박하여 관련 저술을 많이 남겼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남구만은 역사학, 철학, 문학, 지리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학 연구만 살펴보면 그의 문학론¹⁾을 비롯하여 한시²⁾, 시조³⁾, 소차⁴⁾, 기문⁵⁾ 등에 대한 문학적 성취가 현재까지

1) 김영주,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김영주,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 박영민, 『藥泉 南九萬 한시의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성당제, 『藥泉 南九萬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성당제, 『약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회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성당제,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威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양언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3) 장정룡, 『東海市 望祥洞 유적과 藥泉 南九萬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 강원도민속학회, 1995; 이승철, 『동해 약천마을과 약천 남구만의 <시조> 옛보기』, 『강원민속학』 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4) 성당제, 『藥泉 南九萬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송혁기, 『소차류(疏籟類) 산문의 입의(立意)와 수사(修辭) 양상 일고 - 허적(許積) 논척과 관련

보고되었다. 한편 남구만 개인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이른바 17-8세기 남구만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소론계 문인지식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 아들인 남학명(南鶴鳴, 1654-1722), 손자인 남극관(南克寬, 1689-1714), 자형인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제자인 최석정(崔錫鼎, 1646-1715)·최창대(崔昌大, 1669-1720) 부자, 최규서(崔奎瑞, 1650-1735), 박태보(朴泰輔, 1654-1689)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남구만은 17-8세기 지성사에서 소론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소론계 학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문학 방면에서 남구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한시와 소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산문 가운데 일찌감치 소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는, 남구만 상소문에 대한 정조(正祖)의 추송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소차에 집중된 남구만 산문 연구에 보조를 맞추는 일환으로 기문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일반적으로 기문은 건물에 대한 기문과 산수에 대한 기문으로 나뉜다. 건물과 산수를 대상으로 한 기문은 문체상 기사(記事), 사경(寫境), 의론(議論) 세 가지 요소가 착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다채로운 문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

한 소차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6, 민족문화사학회, 2008; 송혁기, 「老·少 分岐期的 學的 地形과 南九萬 계열 소론계의 문학비평」,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김지웅, 「藥泉 南九萬 疏筭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5.

5) 성당제,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威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6) 남구만 기문에 대한 연구는 성당제,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威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가 유일하다. 남구만의 기문 가운데 「威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조선 태조 고향의 예찬, 생동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산수관의 표출, 충렬의 표창과 설화의 수용, 失地에 대한 애착 등을 다루고 있다.

로 기문이라는 문체는 이른바 ‘고문(古文)’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남구만은 총 8편의 기문을 남겼는데, 각각의 기문 성격이 이채롭다.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는 1660년 가을 모친을 모시고 온양군의 온탕에 갔을 때 황폐해진 북탕(北湯)을 보수하고 지은 작품이다. 『함흥십경도기(咸興十景圖記)』와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는 1674년 함경도관찰사 시절에 함흥과 함경북도 변방에 위치한 산수의 승경을 기록한 작품인데, 각각 10개의 승경을 직접 방문한 다음 그림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기문을 지은 것이다. 『함경도지도기(咸鏡道地圖記)』는 1673년 함경도의 지도를 제작하여 임금에게 바칠 때 함경도 지역의 특성과 유의점을 밝혀 놓은 것이고, 『성경여지도기(盛京輿地圖記)』 역시 1697년 중국 심양(瀋陽)의 지도를 제작하여 임금에게 바치며 쓴 기문이다. 『망운정기(望雲亭記)』는 1685년 생질인 박태유(朴泰維, 1648-1686)가 고산도(高山道) 찰방 시절 조성한 망운정에 대한 기문이고, 『용암정기(龍巖亭記)』는 1698년 제자인 서숙(徐塾)이 가평의 비렴산(蜚廉山)에 조성한 용암정에 대한 기문이다. 끝으로 『명고서원중수기(明臯書院重修記)』는 1709년 조익(趙翼)을 제향하고 있는 명고서원을 중수할 때 쓴 기문이다.

고문에서 거론되는 기문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물이나 산수가 된다. 남구만이 지은 기문 가운데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기문은 『망운정기』, 『용암정기』, 『온양온천북탕기』, 『명고서원중수기』이고, 『함경십경도기』, 『북관십경도기』는 각각의 10개 승경이 건물인 경우도 있고 산수인 경우도 있다. 한편 『함경도지도기』와 『성경여지도기』는 앞의 기문 성격과는 달리 지도를 제작한 다음 이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적시한 기문으로, 그 대상이 건물이나 산수가 아니라 지도가 된다. 또한 기문의 세 가지 요소인 기사, 사경, 의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망운정기』, 『용암정기』는 의론이, 『온양온천북탕기』, 『명

고서원중수기』는 기사와 의론이, 『함경십경도기』, 『북관십경도기』 가운데 산수를 기록한 기문은 사경이 위주가 되어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총 3편의 기문을 살펴볼 것이다. 해당 작품과 그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작품은 주제 의식면에서 의론으로 점철되었으면서도 산문수사학 측면에서 기법적인 문예미가 잘 드러난 『망운정기』이다. 이 작품은 참신한 의론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고, 이러한 주제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편장자구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 볼 작품은 『북관십경도기』이다. 이 작품은 기문이라는 문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타 문체의 요소들을 끌어들이어 이채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었으며, 또한 이 작품에서는 남구만의 산수관을 비롯한 철학적 사유의 편린들을 담고 있어 작자의 사유를 읽어내기가 용이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작품은 『온양온천복탕기』이다. 남구만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운데 몇몇은 그의 고토(古土) 회복 의식이라든지 실지(失地)에 대한 애착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남구만의 역사의식이 유풍의 회복이라는 염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나아가 애민의식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남구만은 여러 글을 통하여 고토(古土) 회복 의식과 실지(失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사라진 유풍의 회복에 대한 그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전자가 그의 역사의식의 발로라면, 후자는 그의 애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전형적인 관료문인으로서의 애민의식이라, 사립이나 처사로서의 애민의식과는 그 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온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군신민(君臣民)이 공락(共樂)하려는 진정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체재의 혼합과 철리적 산수관 유풍의 회복과 애민의식을 대상으로 그 문학적 특질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망운정기(望雲亭記)」 - 참신한 의론과 편장자구의 안배

망운정의 주인은 바로 박세당의 아들 박태유이다. 1685년 박태유는 탄핵 사건에 연루되어 고산도 칩방으로 좌천되었는데, 역관(驛館) 위에 정자를 짓고 ‘망운(望雲)’이라고 편액을 달았다. 망운이라는 것은 적인결(狄仁傑)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타향에서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정을 뜻하는데, 남구만은 박태유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孝心)이 장차 국가에 대한 충심(忠心)으로 바뀌기를 당부하는 의론을 개진한다. 일체 사경도 기사도 없이 오로지 의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예로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 사모하고 물건을 보고서 감회를 일으키는 자가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마는 유독 적량공의 말이 세상에 전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아! 망운이라는 말은 본래 특별히 불만한 경치가 아니고, 또 읍을 만한 성물이 없는데도 아버이를 생각하는 모든 효자들이 망운을 가지고 구실을 삼지 않는 이가 없으니, 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적량공이 효도를 옮겨 국가에 충성한 것이 천하와 후세 사람들에게 심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한때에 우연히 한 말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기에 충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② 그렇다면 만약 적량공이 국가에 충성한 것이 저와 같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설령 구구한 효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훌륭하게 여길 것이 못 되는데, 하물며 그 하찮은 한마디 말에 있어서이겠는가. 이와 같다면 적량공의 뜻은 구름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아버이를 생각하는 데 있었으며, 적량공의 효도는 단지 아버이를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실로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데 있었던 것이니, 후세에 적량공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충성을 바친 것을 본받지 않고 다만 그 아버이를 생각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것만 안다면 안 될 것이요, 그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을 본받지 않고 다만 구름을 바라본다는 한마디 말만 취한다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③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워함이 효도가 될 수 없으며, 높은 산에 올라 고향을 바라봄이 효도가 될 수 없으며, 보는 것에 따라 감회를 부치는 것이 효도가 될 수 없으며, 말로 형용하고 글로 기록함이 효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군주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들고 ‘국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을 생각하여 필경 성취함이 적량공에게 부끄럽지 않은 뒤에야 비로소 효도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오히려 어찌 이 정자가 있고 없음을 논할 것이 있겠는가.

④ 그러나 아버이 곁을 떠나 국사에 수고하는 자식은 수레와 말 사이에서 분주하고 손님과 나그네를 맞이할 때를 당해서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 혼정신성을 오랫동안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산천이 아득히 막혀 있고 길이 멀어서 발걸음을 머뭇거리며 돌아봄에 마음이 답답하여 무언가 맺힌 듯하다.

⑤ 이러한 때에 이 정자에 오른다면 구름을 바라볼 것이요, 구름을 바라본다면 아버이를 생각할 것이요, 아버이를 생각하면 아버이가 나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대략 말한다면,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청렴하고 삼가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며 공정하게 일하고 사사로움을 잊는 것이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이 가르침을 어기지 말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버이를 생각함에서 연유하지 않음이 없고,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자의 구름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정자를 짓는 것을 또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⁷⁾

7) 南九萬, 『藥泉集』 권28, 『望雲亭記』. 원문은 편장지구 분석에서 다루기 때문에 생략함. 아울러, 이 작품 맨 앞의 “朴擥泰維士安, 左官爲高山道察訪, 作亭於驛館之上, 暇日登臨, 不勝其思親之情, 扁其亭曰望雲. 實取狄梁公語也, 仍求記文於余.”와 맨 마지막의 “嗚呼! 朴擥其能使斯亭不廢, 亦如梁公之語傳於世則幾矣.”는 생략함. 또한 『藥泉集』 번역문은 기존의 성백효 역, 『국역 약천집』 1-7, 한국고전번역원, 2004-2008. 을 참고하면서 필자가 수정·보완하였음. 이하도 마찬가지임.

내용별로 구분하면 위와 같이 총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단락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망운의 의미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참신한 의론을 개진한 부분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당(唐)나라의 명재상이 된 적인걸의 행적에 근거하여, 그가 태항산(太行山)에서 남쪽으로 떠가는 흰 구름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한 효심을 끝내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는 논리이다. 유가에서 ‘이효위충(移孝爲忠)’의 사유는 효와 충을 견비해야 하는 선비의 중요한 덕목으로 흔히 거론되는데, 남구만은 적인걸의 효심과 재상으로서의 충심을 망운이라는 고사에 결합시켜, 박태유로 하여금 자연스레 효심에서 충심으로 옮겨가도록 인도하고 있다. ② 단락은 이와 같은 사유를 전제로 이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약 적인걸이 재상으로서 국가에 충성한 결과가 없었다면, 애절하게 망운을 읊은 효성이 있었다 한들 후대에 아무도 망운 고사를 기억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적인걸의 효도는 단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실로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데 있었던 것이라고까지 단언한다. 짐짓 당돌하고 억측에 가까운 주장인 듯하지만, 그럴싸한 논리라 납득이 되기도 한다. 이어지는 ③ 단락은 ② 단락을 부연하여 결국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토했다.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생각하는 것도, 높은 산에 올라 고향을 바라보는 것도, 문장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모두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오직 군주를 위해 충성하여 국사를 잘 다스리는 것만이 진정한 효도라는 결론을 맺는다. 이러하니 정자는 왜 필요하겠으며, 굳이 망운이라는 편액이 왜 필요하겠는가. 오로지 현달하여 국가에 이바지할 뿐이다. 남구만이 박태유를 몰아가는 기세가 매섭기까지 하다. 남구만의 주제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기문이 끝나도 무방할 듯한데, 남구만은 다시 ④ 단락과 ⑤ 단락을 할애하여 객지살이하는 효자의 감정을 다독이는 한편 그 마음이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귀결되기를 재당부하고 있다. 국사에 바빠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망운정에 오르면 그래도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면 그래도 아버이를 생각하고, 아버이를 생각하면 끝내 아버이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이가 당부한 것이 무엇이나. 바로 부지런히 국사에 매진하여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망운정이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는 것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운정이라는 존재를 의문시켰다가, 나라에 대한 충성은 되레 아버이에 대한 효성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효성의 매개체인 망운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리 전개이다.

『망운정기』는 이처럼 망운의 일반적 의미를 남구만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이효위충’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구만의 참신한 해석이 독보적인가. 기실 그렇지도 않다. 남구만 보다 훨씬 이전의 박팽년(朴彭年, 1417-1456)도 망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길지(河吉之)가 경원(慶源)에 망운정을 지었는데, 박팽년이 기문을 써주었다. 박팽년은 망운의 의미를 해석하며, 일반적인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남구만처럼 재상으로서의 적인걸에 주목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온 나라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은 기우(祈雨)의 대상이고, 또한 지방관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하므로 구름은 목민관의 상징이라고 하였다.⁸⁾ 다만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세워졌던 망운정에 대한 한시나 기문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객지살이하는 나그네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경향이 짙은 것을 감안

8) 朴彭年, 『朴先生遺稿』 文, 『望雲亭記』. “昔狄梁公授并州, 有望雲之歎, 其親是思也. 今公已永感矣, 雖有桑梓之念, 不但爾也, 其所取何哉? …… 比年以來, 旱乾爲災, 每勞宵旰之憂, 人之望之也, 不亦宜乎? 公之意, 其在斯耶! …… 公之意未必在雲, 而其所取者實深, 蓋分憂牧民者, 其責不啻【缺】.”

하면⁹⁾ 남구만과 박팽년의 의론은 참신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이 『망운정기』의 주제 및 논리 전개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산문수사학 측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산문수사학 측면에서 고문은 ‘문종자순(文從字順)’의 순정함을 추구한다. 표현에 있어서는 생소하거나 난삽하지 않은 어사(語辭)를 사용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구절과 문장, 문장과 단락, 단락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조응(照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러한 편장자구의 안배는 작자의 정밀하고 치밀한 작법을 전제로 한다. 18-9세기 노론계 인사였던 심낙수(沈樂洙, 1739-1799)와 심노승(沈魯崇, 1762-1837) 부자는 남구만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치밀하지만[巧密] 끝내 활발하지 못하다.”¹⁰⁾, “말이 정밀하고 절실하며[精切] 곡진하고 합당한[曲當] 듯하다.”¹¹⁾라고 언급했는데, 노론계 문인의 평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남구만의 문학 특징은 ‘교밀(巧密)’, ‘정절(精切)’, ‘곡당(曲當)’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교밀이나 정절의 문학적 성취를 편장자구의 안배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망운정기』는 구성적 측면, 즉 편장자구의 안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문장

9) 대표적인 작품으로 權鐸의 『望雲亭, 爲李子敏作』에서 “몇 조각 한가한 구름이 짐짓 나니, 이러한 때 나그네 눈물 옷깃을 적시는구나.(幾片閑雲故故飛, 此時遊子淚沾衣.)”라고 하였고, 裋龍吉의 『次朴敬仲, 望雲亭』에서 “태평 시대에 무슨 일로 늙어 감을 잊을까, 구름 가에서 밭 일구고 달 아래서 고기 잡으리.(太平底事忘年老, 雲耕畔田月下漁.)”라고 하였다. 한편 李種杞의 『望雲亭記』에서는 “비로소 그 아래에 정자를 지어 ‘망운’이라고 편액을 달았으니, 이는 적인걸의 말에서 취한 것이다.(始構亭其下而扁以望雲, 取狄梁公語也.)”라고 하였다.

10) 沈樂洙, 『恩坡散稿』 권4, 『國朝前後文體之異』, “肅廟時農巖·三淵兄弟及朴西溪世堂·南藥泉九萬, 皆以文章鳴. 農巖簡潔雅飭, 而少天機, 三淵奇放馳騁, 而無典則. 西溪之縱恣而頗失收斂, 藥泉之巧密而終欠活動.”

11) 沈魯崇, 『孝田散稿』 권34, 『聞見外編』, “尹文本出註家, 冗衍猥雜, 無一條活色, 南文以崔暹川爲範, 其言似精切曲當, 其實如胥徒文狀. 兩人文皆不免俗下, 所謂載道事業, 不可但曰太不倫也.”

전편이 ‘효(孝)’, ‘충(忠)’, ‘망운(望雲)’, ‘사친(思親)’ 네 가지 문안(文眼)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글을 구성요소간의 관계 설정과 편장자구 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절, 조목 구분	구성 관계
① 自古離親而思慕，覽物而興感者，何限？獨狄梁公之語，傳於世至今。// 噫！望雲之云，本非殊觀之景物，且無可詠之聲律，而凡孝子之思親者，無不以望雲爲口實，此其故何哉？// 豈不以梁公之移孝而爲忠者，爲天下後世之所厭服，是以雖其一時偶發之言，亦足爲人之艷稱而然耶？	②의 발단
② 然則若使梁公其所以爲忠者，不如彼之盛，則設或有區區之孝，亦不足多，而況其一言之微哉？// 夫如是則梁公之意，不在於望雲而在於思親；梁公之孝，不但在思親而實在效忠於國家。// 後之欲學梁公者，不於其效忠而只知其思親之爲孝，不可也；不於其孝親而只取其望雲之一言，尤不可也。	주제 단락
③ 以此言之，涕泣而思戀，不足以爲孝；登陟而瞻望，不足以爲孝；隨見而寄懷，不足以爲孝；形言而紀文，不足以爲孝。// 唯當奉不貳之訓，思靡鹽之義，使其畢竟成就無愧於梁公然後，方可謂孝矣，尙何論斯亭之有無哉？	②를 부연
④ 雖然人子之離親而于役者，當其奔走車馬之間，逢迎賓旅之際，不遑啓處，懷歸而未歸。悶定省之久曠，歎饕殮之無人，山川隔矣，道路遠矣，遲回眷顧，心壹鬱而如結。	(내용 전환) ①과 조응
⑤ 于斯時也，登斯亭，則斯望雲矣；斯望雲，則斯思親矣；斯思親，則斯思親之所以教我者矣。// 槩言其爲教，勤而敏也，廉而謹也，敬上而恤下也，奉公而忘私也。日夕孳孳，思無違於此教，則其所以效忠者，未始不由於思親；其所以思親者，未始不在於斯亭之望雲。// 夫然則亭之作，亦何可已也？	③과 조응

이 작품의 주제는 ② 단락에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쪽의 흰 구름을 바라보는 적인걸의 본의가 나라에 대한 충성인데, 적인걸의 행동에만 국한되어 효도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① 단락은 ② 단락의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의(設疑)로 작용하고 있고, ③ 단락은 ② 단락을 부연하여 주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④ 단락은 ① 단락과 조응하면서 한 차례 내용 전환을 시도하였고, ⑤ 단락은 ④ 단락을 연결하면서 ③ 단락 말미에서 제기한 의문을 뒤집어 조응하고 있다.

산문수사학에서 조응의 문제는 앞뒤로 바로 연결되는 단락간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단락간의 연결을 중요시한다. 앞 단락에서 암시하고 몇 단락 뒤에서 호응을 하는 방법인 것이다.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망운정기』는 발단-주제-부연의 순차적인 과정 속에서 상호간에 떨어져 있는 단락들이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과 문예미를 위해 유기적으로 조응하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이 글은 자구 운용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글은 전편이 ‘효(孝)’, ‘충(忠)’, ‘망운(望雲)’, ‘사친(思親)’ 네 가지 문안을 반복적으로 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세를 변화시키는 참치(參差)와 교착(交錯)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참치는 길고 짧은 구를 배열하거나 혹은 상하구의 자수(字數)를 증감시켜 고의로 정제된 구식(句式)에 변화를 주는 것이고, 교착은 두세 개씩 짝을 이루는 구형(句型)을 뒤섞는 것이다. ⑤ 단락을 자구 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登斯亭(3), 則斯望雲矣(5); 斯望雲(3), 則斯思親矣(5); 斯思親(3), 則斯思親之所以教我者矣(11)”처럼 3·5의 정제된 구식에 끝에서는 3·11의 배열로 참치의 구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勤而敏也, 廉而謹也, 敬上而恤下也, 奉公而忘私也.”처럼 4·4 구와 6·6 구를 뒤섞는 교착의 구형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구 운용에 변화를 주어 어세의 곡절을 피하는 목적은 문예미의 추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망운정기』는 기존의 망운의 일반적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이효위충’을 강조하였다는 참신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산문 작법에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의 문안(文眼)은 ‘효(孝)’, ‘충(忠)’, ‘망운(望雲)’, ‘사친(思親)’ 등으에 집중되어 있고, 독자로부터 ‘이효위충’이라는 새로운 의론을 제시하여 설득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문안을 편장에서의 조응과 자구에서의 안배를 통해 전략적으로 글을 조직하였다. 일견 일반적인 망운의 용사(用事)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연하거나 변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가운데, 정교하고 효과적인 산문

수사를 활용하여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예미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그 자체로서 성격이 복합적인 『북관십경도기』이다. 또한 남구만의 산수관(山水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Ⅲ.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 - 체재의 혼합과 철리적 산수관

『북관십경도기』는 1674년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 재직 시 함흥¹²⁾을 제 외한 함경북도 변방의 10개의 승경에 대해 각각 그림을 그린 다음 이에 대한 기문을 쓴 것이다. 『함흥십경도기』에 소개된 10개의 승경이 고도(古都)에 대한 애상과 민족적 자긍심의 대상인 것에 비해, 『북관십경도기』에 소개된 10개의 승경은 사적 유람의 대상이었다. 작품 첫 머리에 부기된 소서(小序)에서 『북관십경도기』의 이러한 저술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외(關外)의 산천은 본래 보잘 것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사이에 또한 이처럼 마음과 눈을 웅장하게 하고 원대한 생각을 부칠 만한 곳이 있는데, 다만 땅이 황폐하고 궁벽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널리 알리는 자가 없을 뿐이다. 산과 바다의 경물의 풍치를 눈이 있는 자라면 모두 볼 수 있는데도 매몰됨이 이와 같으니, 더구나 광채를 숨기고 감추어 궁벽한 시골에서 말라 죽어 가는 자가 또 어찌 당세에 이름을 날리고 후대에 명성을 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개탄할 만하다.”¹³⁾ 이 소서를 통해 두 가지를 간취할

12) 함흥 일대의 승경은 『咸興十景圖記』에 보인다.

13) 南九萬, 『藥泉集』 권28, 『北關十景圖記·并序』. “關外山川, 素稱麤厲, 而然於其間亦有此壯心目寄遠想者, 但以地荒僻而人罕到, 無張大之者耳. 山海景物之致, 有目者皆可見, 而猶湮沒如此, 況韜光鏤彩枯死於窮鄉者, 又可望其馳名於當世, 而流聲

수 있다. 우선 「북관십경도기」 체재에 있어서, 해당 승경을 그림으로 묘사한 뒤 기사, 사경, 의론을 부기한 일종의 제화(題畫) 글쓰기의 형태이면서 실용적인 지리지(地理志)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일기 식으로 작성한 상세한 노정, 동행자를 위시한 제3자의 등장 등을 제외하면 산수유기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간략하지만 해당 승경의 위치와 목적지에 이르는 노정 소개, 해당 승경에 대한 설화나 현지인과의 대화, 해당 승경 및 주변의 경물 묘사, 승경 유람 후의 작자의 심정이나 의론을 부기하는 등 산수유기로서의 면모를 대체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북관십경도기」는 제화 형태의 산수유기라 할 수 있다.¹⁴⁾ 두 번째로 「북관십경도기」는 남구만의 산수관을 보여준다. 산수의 발견을 재덕자(才德者)의 우불우(遇不遇)와 연계시키는 방식¹⁵⁾은 바로 유종원(柳宗元)의 「영주팔기(永州八記)」에서 연유하였다. 유종원은 영주사마(永州司馬)로 좌천되어 가 있을 때 그곳 산수를 8편의 기문으로 작성하였다. 그 8편의 글은 경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불행한 처지를 산수에 기탁한 명문인데, 당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승경을 자신의 글로 세상에 알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내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수라도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자신도 누군가가 중앙으로 불러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산수관을 담은 「영주팔기」는 조선시

於後代哉? 可慨也已.”

14) 남구만은 景圖記(勝景圖에 대한 기문)를 두 편, 地圖記(輿地圖에 대한 기문)를 두 편 지었는데, 이 가운데 景圖記는 제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품을 읽으면 완전한 산수유기라 할 수 있다. 남구만 이외 작가들이 남긴 景圖記를 살펴보면, 記事와 寫境을 위주로 한 제화적 요소가 농후한데 비해서 남구만의 景圖記 작품들은 산수유기의 면모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한 작가가 남구만처럼 기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품을 圖記類로 지은 사례는 흔치 않다.

15) 성당제,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가운데 ‘산수관의 표출’ 장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 산수유기의 전범이 되었다. 다만 함경도 관찰사로서 남구만이 『북관십경도기』를 지은 것이, 유종원처럼 좌천된 불우한 심정을 산수유기에 기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겠지만, 산수의 발견과 재덕자의 우불우를 관련시키는 사유는 분명 유종원의 『영주팔기』에 근원하였고 이것이 또한 『북관십경도기』를 광의의 산수유기로 보는 척도가 된다.¹⁶⁾

『북관십경도기』는 총 10개의 승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학포(鶴浦), 국도(國島), 도안사(道安寺), 괘궁정(掛弓亭), 석왕사(釋王寺), 성진진(城津鎭), 칠보산(七寶山), 창렬사(彰烈祠), 용당(龍堂), 무이보(撫夷堡) 등이다. 이들 승경에 대한 기록은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 → ‘해당 승경 및 주변 묘사’ → ‘관련 설화 소개 혹은 역사적 고증’ → ‘작자의 심정과 의론 부기’ 순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일례로 무이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① 경흥부(慶興府)에서 두만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30리를 가면 무이보(撫夷堡)에 이르는데, 성이 강의 남쪽 기슭을 내려다보고 있다.

② 북쪽으로 오랑캐 땅을 바라보면 큰 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 모퉁이를 바라보면 기이한 봉우리가 깎아 놓은 듯이 서 있으니, 바로 알동(幹東) 땅으로 목조(穆祖 이성계의 고조부)가 일찍이 거주하신 곳이다. 무이보에서 약간 내려가면 북쪽 기슭에 큰 산이 있고 물이 역류하여 굽어 도니, 바로

16) 유종원의 『영주팔기』는 숨겨져 있던 승경과 자신의 처지를 일체화시켜 자신의 정서와 마음을 빚대어 묘사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주제의식이나 형상화 방법은 후대 독특한 산수유기의 전범이 되었다. 게다가 『영주팔기』라는 작품명도 원래는 각각 여덟 개의 작품이었던 것을 후대에 한 데 모아 불렀던 것에 불과하다. 남구만의 『북관십경도기』는 바로 『영주팔기』의 주제와 형식을 차용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관십경도기』는 유종원의 『영주팔기』처럼 재덕자의 우불우를 시종 해당 승경과 일체화시키지는 않았고, 제목에서 볼 수 있듯 ‘圖記’라는 요소로 인해 일반적인 산수유기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목조 왕비의 옛 능이다. 능의 왼쪽 산허리 약간 낮은 곳에 철을 주조하여 용을 만들어서 묻어 지맥을 도왔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다른 나라의 국경이 되어서 찾아갈 수가 없다. 넓은 들 가운데에 여덟 개의 못이 서로 잇닿아 있는데, 세속에 전해 내려오기로는 못에 오색 연꽃이 함께 핀다고 하나 신빙할 만하지 못하다. 무이보 뒤에 봉수대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한번 올라가 바라보면 땅이 다한 곳 밖으로 또 슬해(瑟海)가 있어서 검푸른 빛이 산과 맞닿아 있다.

③ 아! 조선 초기의 위업과 덕은 비록 두만강 물을 돌려 서쪽으로 흐르게 한다 하더라도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이 성조(聖祖)의 옛집과 능이 모두 강을 사이에 두고 한 걸음 떨어진 곳에 가까이 있는데도 이것을 방치하여 오랑캐들에게 주어 살게 하고 국경으로 삼지 않은 것은 무슨 연고인가? 김종서(金宗瑞) 등 여러 사람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¹⁷⁾

① 이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이고, ②는 무이보 및 주변 경물을 묘사하는 한편 전해오는 설화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있으며, ③은 남구만의 의론이다. 편폭이 짧고 작자의 내면 의식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측면에서 보면, 17세기 산수유기의 소품적(小品的)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의론 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남구만의 변새시(邊塞詩)에서 보이는 고토 회복 의지를 여기서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업을 일으킨 고토가 이제는 청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상실감에서, 조선 초기 두만강까지 북방 경계선을 구획했던 김종서(金宗瑞)에 대한 원망을 통해 이제라도 우리의

17) 南九萬, 『藥泉集』 권28, 『北關十景圖記·撫夷堡』. “自慶興府沿豆滿江上流行三十里至撫夷堡, 城壓江之南岸. 北望胡地, 大野無際, 東指海堧, 奇峯峭壁, 乃幹東地, 而穆祖所嘗居云. 自堡稍下, 北岸有大山, 逆流彎回, 乃穆祖王妃古陵. 陵之左山腰稍低, 鑄鐵爲龍埋之, 以補地脈云, 而今皆爲殊域, 不可往尋. 曠野之中有八池相連, 諺傳池有五色蓮花並發, 而無可徵信. 堡後有烽臺最高, 試登而望焉, 地盡之外, 又有瑟海, 青黑之色, 與天相接矣. 噫! 國初威德雖回豆江使西流, 宜無所不可. 唯此聖祖之舊宅遺陵, 皆在隔江一步地, 而棄而與之腥膻之居, 不爲之疆理者, 抑何故歟? 金宗瑞諸人有難辭其責矣.”

국경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조선의 세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끌려가 고초를 겪은 통한의 장소였던 심양(瀋陽) 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성경여지도(盛京輿地圖)」를 제작하여 훗날을 대비한 남구만의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남구만의 산수관에 대해, 산수의 발견과 재덕자의 우물우를 관련시키는 사유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산수관은 경물을 통한 철리(哲理)의 체득이다. 이러한 산수관은 도학자(道學者)가 격물치지로써 산수 유람을 구도(求道)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유와 관련되어있다. 남구만은 어느 승경, 어떤 경물이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철리를 체득하기를 요구한다. 다만 유불도(儒佛道)와 관련된 심오한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촉발되는 크고 작은 철리들을 간명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소품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한 글은 이러한 사유를 잘 보여준다.

음식과 산수는 사람에게 외물(外物)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비록 천하의 맛난 음식을 다 차려놓아도 반드시 입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배에서 만족할 것이고, 비록 세상의 장대한 유람을 다 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제 몸에 돌이켜 본 후에야 마음에서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 한 길 높이 쌓인 풍성한 음식과 물과 땅에서 생산된 요리가 비록 양쪽에 섞여 있어도 어찌 내 배의 굶주림에 이익이 되겠는가? 강과 산의 형상과 진기하고 괴이한 볼거리가 비록 앞뒤에 늘어서 있더라도 어찌 내 마음의 공허함에 도움이 되겠는가?¹⁸⁾

18) 南九萬, 『藥泉集』 권27, 「飽勝錄序」. “夫飲食與山水, 其於人爲外物均也. 夫然則雖悉天下之美味, 必入於口然後果於腹, 雖極宇內之壯遊, 必反於身然後饜於心. 不然則彼方丈之具, 水陸之品, 雖交錯於左右, 何益於吾腹之枵然? 流峙之形, 瓌詭之觀, 雖羅列於前後, 何補於吾心之愬如?”

김인감(金人鑑)이 본인의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포승록(飽勝錄)』에 대해 쓴 서문의 일부분이다. 남구만이 강조하는 산수 유람의 효용은 바로 산수의 승경을 통한 철리의 체득에 있었다. “비록 세상의 장대한 유람을 다 하였 다하더라도 반드시 제 몸에 돌이켜 본 후에야 마음에서 만족스러울 것이다. [雖極宇內之壯遊, 必反於身然後鑿於心.]”라고 언급했듯, 체험과 경험을 자신에게 돌이켜보아 철리를 끄집어내어야 진정한 산수 유람인 것이다. 김인감이 스스로 서문을 지으면서 “곤궁하여 초야에 있을 때에는 구룡연(九龍淵)에 잠겨 있는 용의 흔들리지 않는 큰 뜻을 사모하고, 영달하여 조정에서 벼슬할 때에는 비로봉(毗盧峰)처럼 우뚝이 서서 무리들 중에 빼어난 절개를 배우겠다.”¹⁹⁾라고 한 것에 대해, 남구만은 음식에 비유하여 맛있는 것을 음미하고 향기로운 것을 들이켜 참으로 그 맛을 안 것²⁰⁾이라고 고평한 것만 봐도, 그의 산수관을 가늠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숙(徐塾)의 용암정(龍巖亭)에 대해 기문을 써주며 “용이라는 물건은 본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못 속에 칩거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으며, 또 혹은 변하여 북이 되고 사람의 손톱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바,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 한다. 지금 그대 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북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²¹⁾라고 하였는데, 서숙이 있는 용암(龍巖)에 철리를 부여하여 서숙으로 하여금 용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당부한 것이다. 이런

19) 南九萬, 『藥泉集』 권27, 『飽勝錄序』. “以爲窮而在野, 慕九淵潛龍不拔之志, 達而立朝, 學毗盧卓立不群之節.”

20) 南九萬, 『藥泉集』 권27, 『飽勝錄序』. “君之此遊, 警諸飲食, 可謂嚼其旨而歆其馨, 眞知其味者矣.”

21) 南九萬, 『藥泉集』 권28, 『龍巖亭記』. “龍之爲物, 本以潛藏爲德, 或蟄於深湫, 或蟠於汚泥, 且或變而爲梭, 入人之爪甲者, 凡以晦其迹而全其身也. 今爾之處此亭也, 若湫也若泥也若梭也若爪甲也, 則不亦善乎?”

산수관을 지냈기에 남구만은 『북관십경도기』를 비롯하여 『함흥십경도기』에서 승경에 대해 자신만의 철리를 담은 의론을 간명하고 통찰력 있는 견해들을 남기고 있다. 몇몇 사례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정자에 올라 이러한 경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손으로 가리키고 돌아보면서 군사들을 호령하고 부를 수 있다. 그리하여 멀리 나가 산에 오르는 수고로움이 없고 가까이에서 현악기를 타고 시를 읊조리는 즐거움이 있으니,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구비되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²²⁾ - 『咸興十景圖記·知樂亭』

바다와 산의 높고 깊음과 강호의 깨끗하고 아름다움과 교야의 넓고 평평함을 이미 가려 뽑아 이 누대에 모았고, 인물의 많고 성함을 또 겸하여 소유하고 있으니, 낙민루(樂民樓)라고 명명한 뜻은 이 때문일 것이다.²³⁾

- 『咸興十景圖記·樂民樓』

아! 이곳은 바로 백두산의 뿌리요 압록강의 근원이니, 천하의 외진 곳이다. 예전에는 여진(女眞)과 말갈(靺鞨)이 서로 이곳을 소굴로 삼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여 마치 금수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과 같았는데, 어느 때에 불교가 이곳에 전래되어 인공(人功)과 사력(事力)으로 마침내 이와 같이 높고 웅장한 석탑을 세웠단 말인가. 이는 천 년 이내의 일에 불과한데도 아득하여 징험할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한문(寒門)을 뛰어넘고 현명(玄冥)을 지나 전옥(顛頊)에게 이것을 물을 수 있겠는가.²⁴⁾ - 『北關十景圖記·挂弓亭』

22) 南九萬, 『藥泉集』 권28, 『咸興十景圖記·知樂亭』. “時平則可以縱目而怡情, 有事則可以指顧而號召. 無遠出登陟之勞, 有密邇絃誦之樂, 雖謂之衆美咸具亦可矣.”

23) 南九萬, 『藥泉集』 권28, 『咸興十景圖記·知樂亭』. “凡海岳之崇深, 江湖之清麗, 郊野之廣衍, 既攬而集於茲樓, 而人物之殷盛, 又兼而有之, 名樓之義, 有以也夫!”

24) 南九萬, 『藥泉集』 권28, 『北關十景圖記·挂弓亭』. “噫! 此地乃白山之根, 綠江之源, 天下之窮處也. 從前女眞靺鞨互爲窟穴, 寇攘抄竊, 有若鳥獸之相攫, 未知何時佛教傳來於此處, 而人功事力, 乃能建塔之高壯若此耶? 此不過一千年內事, 而茫昧不

북쪽 지역의 산천은 대체로 거칠고 웅장하여 넓고 탁 트인 구경거리인 진
 실로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산이 굽이지고 물이 감돌며 흘러 이곳만큼 아늑하
 고 고요한 곳은 없으니, 이는 아마도 하늘이 또한 정문부(鄭文孚)의 충렬을
 표창하여 특별히 한 구역을 먼 변방 가운데에 만들어서 그 영혼을 모시고자
 해서인가 보다.²⁵⁾ - 「北關十景圖記·彰烈祠」

이곳은 일월(日月)이 배태된 지역이어서 진실로 이와 같이 기이하고 웅장
 함이 있는 것이다.²⁶⁾ - 「北關十景圖記·龍堂」

지락정(知樂亭)과 낙민루(樂民樓)라는 누대의 명명(命名)에 대해 의론
 을 펼치기도 하고, 영구한 세월 동안 오랑캐의 소굴이 불교의 성지로 바뀌는
 현실을 목도하며 찰나의 인간 생애를 반성하기도 하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인 정문부(鄭文孚)를 표창하기 위해 일부러 하늘이 궁벽한 곳에 사당을
 조성해주었다는 회화적인 의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두만강 신에게 제
 사를 지내기 위해 축조한 용당(龍堂)의 주변 경관이 기이하고 웅장한데,
 이는 이곳이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가 살았던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토 회복 의지와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구만은 개인적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그때그때마다 체득하는 철리를 중요
 시 했는데, 『조설(鈞說)』이라는 논설 역시 이러한 의식을 보여준다. 남구만
 이 고향인 결성(潔城)으로 돌아온 다음, 집 뒤 작은 못에서 낚시를 배우게
 되었다. 두 명의 낚시꾼을 통해 낚시바늘을 만드는 법, 낚시줄을 당기는
 법까지 자세하게 익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으나, 낚시꾼처럼 많은

可徵如此, 安得遠寒門歷玄冥, 從顛項而問之哉?”

25) 南九萬, 『藥泉集』 권28, 「北關十景圖記·彰烈祠」. “北地山川, 大抵麤壯軒輅之觀
 則固可易得, 而山彎水環未有如此地之幽靜者, 豈天亦欲彰鄭公之忠烈, 特設別區於
 荒裔之域, 以妥其靈也耶!”

26) 南九萬, 『藥泉集』 권28, 「北關十景圖記·龍堂」. “日月胚胎之地, 固有奇壯若是者矣.”

물고기는 잡지 못하였다. 이에 남구만은 뉘시꾼에게 그 묘리(妙理)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 뉘시꾼이 대답하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니, 묘리를 어찌 말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또 이른바 묘리가 아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그대가 나의 법을 지켜 아침에도 뉘싯대를 드리우고 저녁에도 뉘싯대를 드리워서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날짜가 쌓이고 달수가 오래되어 익히고 익혀 이루어지면 손이 우선 그 알맞음을 기늬하고 마음이 우선 앎을 터득할 것이다.[可教者法也, 妙豈可教也? 若可教也, 又非所謂妙也. 無已則有一說, 子守吾之法, 朝而垂之, 暮而垂之, 專精積意, 日累月久而習習而成, 手且適其適, 心且解其解.]”라고 하였다. 이는 『장자(莊子)』의 이른바 망전(忘筌)과 같은 개념으로 문학예술 방면에서는 창신(創新)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뉘시꾼의 말을 듣고 남구만은 “이 도를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다만 뉘시질에 쓸 뿐이겠는가.[推此道也, 奚特用於釣而已哉?]”라는 말로써, 일상생활에서 체득하는 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1660년에 남구만이 자친을 모시고 온양군(溫陽郡)의 온천에 갔을 때 지은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를 살펴보겠다. 이 기문은 사라진 유풍에 대한 염원과 함께 그의 애민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IV.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 유풍의 회복과 애민 의식

1660년에 남구만은 부교리에서 삭직되었다가 곧 이조 정랑이 되었다. 이해 8월 22일 자친을 모시고 온양군의 온천에 가게 되었는데, 자친이 두풍(頭風)으로 어지럼증을 앓으셔서 요양을 위해 다녀온 것이다. 원래의 의

도는 자친의 병 치료였지만 실제 온천을 둘러보고는 선왕(先王)의 유풍이 사라진 데에 한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예전에 궁전이 있던 옛터를 두루 둘러보니, 담장이 무너지고 섬돌이 망가져서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으므로 선왕의 유풍을 생각하고 태평성세가 이미 멀어짐을 개탄하여 하루 종일 머뭇거리며 자못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²⁷⁾

남구만이 당시에 둘러본 온양의 온천은 세조와 삼대비(三大妃) - 정희왕후 · 소혜왕후 · 안순왕후 - 의 유풍이 남아있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치되어 “깨진 기와 조각과 자갈이 우물 속에 가득 차 있고 풀뿌리가 우물가를 빙 둘러싸고 있어서 황폐하고 질척거리려 거의 분별할 수가 없는[瓦礫塞滿於井中, 草根纏縛於甃旁, 燕沒沮洳, 幾不可辨]” 지경에 이른 모습을 남구만은 직접 목도하고서 매우 안타까워한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단순히 선왕이 남긴 유적에 대한 그리움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애민의식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아래 인용문에서 그러한 사유를 쉽게 읽을 수 있다.

① 내가 생각건대 하늘이 이미 물과 불을 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쓰게 하고, 또 임부(壬夫)와 정녀(丁女)로 하여금 서로 그 영험함을 나타내어 자연의 기운이 뒤섞여 신묘한 온천을 빚어내어 만백성의 병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에 성왕(聖王)이 나오시어 하늘의 은혜를 공경히 받들어 몸소 그 복을 누리시고, 또 이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리하여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동산과 같아서 모두 인수(仁

27)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既來翌日, 周覽昔時殿宇遺址, 頽垣缺砌, 略無完者, 想先王之遺風, 慨盛世之已遠, 躊躇竟日, 殆不能爲懷.”

壽)의 경지에 오르게 하였으니, 어찌 수나라와 당나라의 화청궁(華清宮)이 다만 음란하게 향락하는 터전으로 쓰인 것과 같겠는가.²⁸⁾

② 선왕이 일을 하실 때에 또 후세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하여 지금 사람에게 미치는 유택(遺澤)이 장차 천지와 함께 무궁할 터인데, 다만 한 번 수리했다가 한 번 폐지되어서 그 공효를 널리 베풀지 못하게 된 것이 한스러우니, 이것이 애석해할 만하다.²⁹⁾

③ 이제 만약 이 폐지되었던 온탕을 열어 남자는 남탕(南湯)에서 목욕하고 여자는 북탕(北湯)에서 목욕하게 한다면 우리 선왕(先王)과 선비(先妃)의 거룩한 덕과 큰 은혜가 심원하게 함께 유행할 것이다. 이미 우리 백성들의 이름과 가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의 예의의 풍속을 이룰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³⁰⁾

④ 혹자는 선비(先妃)가 왕립했던 곳은 곧 금지(禁地)라 하여 난색을 표하나 내가 생각건대 선왕께서 왕립하셨던 곳도 이미 일반인의 목욕을 허락하고 있으니, 선비가 왕립하셨던 곳을 부인들에게만 목욕하도록 허락한다면 또 어찌 나쁠 것이 있겠는가. 옛날 송나라의 선인(宣仁) 고태후(高太后)는 말하기를 “만일 백성에게 이롭다면 나는 내 머리카락과 살점도 아깝지 않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 선비께서 일찍이 훈계하신 내용이다.³¹⁾

28)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余意天既生水火, 使民並用, 而又使壬夫丁女交效其靈, 鴻洞繆轄, 釀出神泉, 于以除萬民之疾. 於是焉聖王有作欽天之賜, 既身受其祐, 又敷錫于下民, 樂與人共之. 如周文王之囿, 使之咸躋于壽域之中, 夫豈若隋唐華清, 祇用爲淫樂之資而已?”

29)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先王作事, 又將以利於後也. 今其遺澤之及人者, 將與天壤無窮, 獨恨其一修而一廢, 不得普施其功用, 此其可惜.”

30)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今若開此廢湯, 使男浴於南, 女浴於北, 則我先王先妃之盛德洪恩, 汪濊而並流. 既可以祛吾民之痛痒, 又可以成吾民之禮俗, 豈不休美矣哉?”

31)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或以先妃所臨, 卽爲禁地爲難. 余以爲

①에서는 온천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성왕으로, 다시 성왕에서 백성으로 이어지는 은택과 덕화의 매개체임을 강조하였다. ②에서는 이러한 공효가 널리 베풀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③에서는 온천의 회복을 통해 성왕의 은택을 유구하게 이어지게 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가려움을 제거하며 예의의 풍속을 이루기를 염원하였다. ④에서는 다시 한 번 애민 의식을 강조하여 온천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기실 온양의 온천은 역대 선왕(先王)와 선비(先妃)가 요양을 위해 수시로 행차했던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남구만이 둘러본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려 과거의 유풍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온천이라는 장소를 단순히 치료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늘 → 성왕 → 백성으로 이어지는 은택과 덕화의 매개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의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촉발되었고, 이는 선왕의 유풍에 대한 회복과 애민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유는 결국 직접 온천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행동³²⁾으로 관철되었으니 그 절실함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남구만은 여러 글을 통하여 고토(古土) 회복 의식과 실지(失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사라진 유풍의 회복에 대한 그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³³⁾ 전자가 그의

先王所御，亦既許人浴，先妃所臨，獨許婦人浴，而又何傷乎？昔宋之宣仁高太后有言，苟利於民，吾無愛乎髮膚，此即我先妃之所嘗爲訓者也。”

32) 南九萬, 『藥泉集』 권28, 『溫陽溫泉北湯記』. “나는 마침내 하인들을 모으고 흙 삼태기와 가래를 장만하여 막힌 곳을 소통시키고 더러운 것을 씻어 내며 도랑을 치고 물줄기를 터놓아서 3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 이미 열어 놓았으나 다시 막히고 이미 수리하였으나 다시 폐지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을 맡은 지방관의 책임일 것이니, 나 또한 어쩔 수가 없다.(余乃聚徒隸具畚鍤，疏其塞滌其穢浚其溝決其流，三日而治畢。至若既開而復塞，既修而復廢，斯乃守土者之責，吾亦未如之何也已矣.)”

33) 남구만보다 한 세대 아래 인물이면서 노론의 영수였던 金壽桓이 이곳 北湯에 대해 지은 시가 눈여겨볼 만하다. 그가 지은 『賜浴北湯後，雲卿有詒榮之作次』에서 “함께 임금님 은택 온몸으로 받았으니, 도성 먼지 괴로워 갓끈을 씻어 보리라. 모습 비추면 흰 두 살쩍이 가련하건만, 성은에 보답하려는 마음만은 밝아라.(同涵聖澤深濡首，苦

역사의식의 발로라면, 후자는 그의 애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전형적인 관료문인으로서의 애민의식이라, 사림이나 처사로서의 애민의식과는 그 곁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온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군신민(君臣民)이 공락(共樂)하려는 진정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V. 맺음말

본고는 17-8세기 지성사에서 소론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소론계 학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인물인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기문(記文)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참신한 의론을 개진하고 산문수사학에서 이른바 편장자구의 안배가 돋보이는 작품이 「망운정기(望雲亭記)」이다. 「망운정기」는 ‘망운(望雲)’의 일반적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이효위충(移孝爲忠)’의 주제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세워졌던 ‘망운정(望雲亭)’에 대한 한시나 기문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객지살이하는 나그네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경향이 짙은 것을 감안하면, 남구만의 의론은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구만의 산문에 대해 평가 가운데 ‘교밀(巧密)’, ‘정절(精切)’ 등의 평어(評語)가 보이는데,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산문수사학에서의 이른바 편장자구의 안배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망운정기」는 이러한 남구만 산문의 구성적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厭京塵試濯纓。照影還憐雙鬢改，答恩唯有寸心明。”라고 하였다. 남구만이 직접 北湯을 경험하고 정비한 경험과 김수항이 은전을 하사받은 南龍翼의 시에 차운한 상황이 그 주제 의식에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남구만이 선대의 유풍 회복과 애민 의식에 집중한 반면, 김수항이 은전을 내린 성상에 대한 충정과 애국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양자 사이에 그 변별점을 간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르면에서 여러 산문 체제를 혼합하고 주제면에서 철리적 산수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이다. 이 작품은 체제에 있어서, 해당 승경을 그림으로 묘사한 뒤 기사, 사경, 의론을 부기한 일종의 제화(題畫) 글쓰기의 형태이면서 실용적인 지리지(地理志)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일기 식으로 작성한 상세한 노정, 동행자를 위시한 제3자의 등장 등을 제외하면 산수유기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간략하지만 해당 승경의 위치와 목적지에 이르는 노정 소개, 해당 승경에 대한 설화나 현지인과의 대화, 해당 승경 및 주변의 경물 묘사, 승경 유람 후의 작자의 심정이나 의론을 부기하는 등 산수유기로서의 면모를 대체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제화 형태의 산수유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남구만의 산수관을 보여준다. 산수의 발견을 재덕자(才德者)의 우불우(遇不遇)와 연계시키는 방식은 바로 유종원(柳宗元)의 『영주팔기(永州八記)』에서 연유하였다. 다만 함경도 관찰사로서 남구만이 『북관십경도기』를 지은 것이, 유종원처럼 좌천된 불우한 심정을 산수유기에 기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겠지만, 산수의 발견과 재덕자의 우불우를 관련시키는 사유는 분명 유종원의 『영주팔기』에 근원하였고 이것이 또한 『북관십경도기』를 광의의 산수유기로 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수관 외에 경물을 통한 철리(哲理)의 체득 또한 남구만의 중요한 산수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수관은 도학자(道學者)가 격물치지(格物致知)로써 산수 유람을 구도(求道)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유와 관련되어있다. 남구만은 어느 승경, 어떤 경물이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철리를 체득하기를 요구한다.

세 번째로 선왕의 유풍 회복과 애민의식이 두드러지는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이다. 남구만이 방문했던 온양의 온천은 역대 선왕(先王)와 선비(先妃)가 요양을 위해 수시로 행차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남구만이 둘러본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려 과거의 유풍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온천이라는 장소를 단순히 치료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늘 → 성왕 → 백성으로 이어지는 은택과 덕화의 매개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의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촉발되었고, 이는 선왕의 유풍에 대한 회복과 애민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유는 결국 직접 온천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행동으로 관철되었으니 그 절실함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남구만은 여러 글을 통하여 고토(古土) 회복 의식과 실지(失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사라진 유풍의 회복에 대한 그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전자가 그의 역사의식의 발로라면, 후자는 그의 애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을 토대로 남구만 기문이 지니는 문예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사(用事)를 변용하여 참신한 의론을 개진하는 한편, 일견 생소해 보이는 주제 의식을 독자에게 심도 있게 여운을 남기기 위해 산문수사의 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관철되는 문안(文案)을 편장의 측면에서 조응시키고, 자구의 측면에서 안배하여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장르, 즉 기문에 국한하지 않고 작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장르들을 적극 혼합하여 복합적인 층위의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한 서술 가운데 작자의 철학 사유, 역사 의식 등을 직간접으로 드러냄으로써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작자의 의식 세계 내면을 간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에서 선별한 세 작품은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도 지니고 있다. 남구만 산문 가운데 소차 연구를 보면, 입의(立意)와 수사(修辭) 방면의 특징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남구만의 기문 가운데 「망운정기」는 참신한 의론과 편장자구법이 잘 드러난 작품이므로, 소차 연구의 의의와 관련지어 논의할 만하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북관십경도기」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남구만처럼 기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품을 도기류(圖記類)로 지은 사례는 흔치 않다. 뿐만 아니라 여타 작가의 승도기(景圖記)에 비해

남구만의 작품들은 산수유기의 면모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온양온천복당기』는 기존 남구만 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 즉 ‘고도회복 의식’과 ‘애민 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남구만 산문 연구 가운데 소차를 제외한 기타 장르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에 증서류를 비롯하여 묘도문자까지 확대하여 남구만 산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南九萬, 『(影印標點) 藥泉集』 1-2, 『韓國文集叢刊』 131-132, 민족문화추진회, 1994.
 朴彭年, 『(影印標點) 朴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9, 민족문화추진회, 1988.
 沈魯崇, 『(影印本) 孝田散稿』, 학자원, 2014.

남구만 저; 성백효 역, 『국역 약천집』 1-7, 한국고전번역원, 2004-200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김영주,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pp.203-234.
 ———,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지웅, 『藥泉 南九萬 疏筭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영민, 『藥泉 南九萬 한시의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pp.1-30.
 성당제, 『藥泉 南九萬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약천 남구만의 고도 회복의지 -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2004, pp.143-166.
 ———, 『약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회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pp.251-284.
 ———,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pp.383-406.

- 송혁기, 『소차류(疏筍類) 산문의 입의(立意)와 수사(修辭) 양상 일고 - 허적(許積) 논
척과 관련한 소차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
학회, 2008, pp.84-111.
- _____, 『老·少 分岐期の 學的 地形과 南九萬 계열 소론계의 문학비평』,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pp.1-30.
- 양연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pp.171-206.
- 이승철, 『동해 약천마을과 약천 남구만의 <시조> 엮보기』, 『강원민속학』 20, 강원도
민속학회, 2006, pp.49-74.
- 장정룡, 『東海市 望祥洞 유적과 藥泉 南九萬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 강원도민
속학회, 1995, pp.89-103.

Abstract

A study about Yakcheon(藥泉) Namguman(南九萬)'s gimun(記文)

Kwon, Jin-ok

This report examines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Yakcheon(藥泉) Namguman(南九萬, 1629-1711)'s gimun(記文). He represented the soron(少論) of 17-18th century and led the sorongye(少論系) academic line of 19th century. Below we will look at three works he left behind.

The first is *Mangunjeonggi*(望雲亭記). This work evolves fresh discussion and forms the so-called law of pyunjangjagu(篇章字句). In addition, the general meaning of Mangun(望雲) is newly interpreted here. The evaluation of his prose is gyomil(巧密) and jeongjeol(精切), so *Mangunjeonggi*(望雲亭記) is evident these characteristics.

The second is *Bukgwansipgyungdogi*(北關十景圖記). This work mixes various styles and a philosophy about nature is revealed well. For example, *Bukgwansipgyungdogi*(北關十景圖記) contains all of next elements, a nature travel writing, geography writing, notes on picture, etc. A philosophy about nature is the spirit of philosophy through nature travel, this idea is related to moralist's philosophy about nature that is exploring the truth through nature travel.

The third is *Onyangbukcheontangi*(溫陽溫泉北湯記). This work shows well the recovery of old custom and love for the people. He ignored the place of the hot spring as a means of healing, and regarded it as a mediator between the blessings and moral influence, which triggered his sadness and disappointment. This led to the recovery of old custom and love for the people. Through his various writings, he insisted on the recovery of native land and attachment to the lost land. Through this work, we can see the desire for the recovery of old custom.

Key Word : Yakcheon(藥泉), Namguman(南九萬), gimun(記文), fresh discussion, law of pyunjangjagu(篇章字句), nature travel writing, philosophy about nature, recovery of old custom, love for the people

권진옥

소속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강사

전자우편 : uipop98@daum.net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 투고되어
2017년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